# 전통의 현대적 수용과 계승을 위한 모색*
## -문화청 문화교류사 사업을 중심으로-

김현욱**
hwk33@kookmin.ac.kr

<目次>

1. 머리말
2. 문화교류사 지명 및 파견현황
3. 문화교류사 지명 분야의 추이
4. 활동사례를 통해 본 사업의 성과
4.1 장기간 파견의 성과
4.2 전통의 동시대성 모색의 기회
5. 맺음말

主題語: 문화교류사(Japanese Culture Envoys), 문화청(The Agency for the Cultural Affairs),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 센 소오쿠(Sen, So-oku), 전통문화(Traditional culture), 일본의 문화외교(Japan's cultural diplomacy)

## 1. 머리말

전통적인 가부키(歌舞伎)와는 다른 연출로 새롭게 선보인 현대풍의 '슈퍼가부키(スーパー歌舞伎)'는 1986년 상연 당시 가부키 팬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새로운 관객층을 확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어서 2015년에 선보인 애니메이션을 제재로 한 '슈퍼가부키Ⅱ'가 이목을 끌면서 슈퍼가부키의 인기는 전 세대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슈퍼가부키는 현대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전통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부키의 예에서 보듯이 일본의 전통예술계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무대 연출을 시도하고, 나아가 전통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통예술계의 공통된 과제는 전통의 현대적 수용을 통한 예술의 발전과 계승방안의 모색일 것이다. 이를 사회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예술인의 해외파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외무성, 국제교류기금, 문화청 등이 일본문화 이해 증진 및 문화교류를 목적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53392)
**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로 시행하는 문화예술인의 해외파견은 국제관계에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현대사회가 전통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전통예술을 활성화하는 장을 제공하는 효력을 거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문화청 문화교류사(文化交流使) 사업이다. 일본 문화청에서는 2003년부터 일본문화의 발신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인을 일정 기간 해외에 파견하는 문화교류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으로 18회째를 맞이했다. 문화교류사의 지명은 전통문화 분야에서의 선정 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특히 장르와 영역을 넘어 활동하는 국제성을 갖춘 문화예술인을 지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문화청 문화교류사 사업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통예술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융합시키고 동시대적인 힘을 얻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교류사는 일본의 전통문화, 생활문화, 대중문화 분야에서 활약하는 문화예술인 중에서 '문화교류사 사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문화청 장관이 지명한다. 2019년 기준으로 143명의 개인과 26개 단체의 문화교류사가 세계 88개국으로 파견되어 활동하였으며, 2020년 10월에는 6명의 문화교류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해외에 파견된 문화교류사는 사업 취지에 맞춰 각자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공연, 전시, 강연, 지도, 공동제작, 정보교환 등을 통해 일본문화의 이해를 돕고, 동시에 해외 문화예술인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문화교류사 사업이 외무성이나 국제교류기금이 시행하는 해외파견 사업과 다른 특징은 모집·응모가 아닌 추천을 통한 지명이라는 점이다. 문화청 보도자료의 문화교류사 지명절차 설명[1]에는 문화교류사 사업위원회의 지명 후보자 추천에 앞서 외무성 재외공관과 국제교류기금 해외사업소의 협력하에 해외 각국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인의 수요를 조사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명 분야와 후보자의 선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문화교류사 지명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본고는 문화교류사 사업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문화교류·국제공헌을 위한 주요 시책이라는 인식하에 문화교류사의 활동보고, 저술,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교류사 지명과 지명 분야의 선정배경을 조사하고, 동시에 문화교류사 사업의 특징과 성과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현재까지 문화교류사의 지명은 전통문화 분야에서의 선정 비율이 높고, 그중에서도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내외를 무대로 활동하는 국제성을 갖춘 문화예술인을 지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문화교류사 사업이 일본의 전통예술에 동시대적인 감각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통예술 종사자를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문화교류사의 활동사례를 들어 살펴본다.

---

1) 일본 문화청 웹사이트 보도자료「文化庁文化交流使事業について」
https://www.bunka.go.jp/koho_hodo_oshirase/hodohappyo/pdf/92619901_03.pdf(검색일:2021.4.1.)

## 2. 문화교류사 지명 및 파견현황

2003년 당시 일본 정부는 '관광입국(觀光立國)'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의 하나로 '일본브랜드의 해외 발신'을 들고, 일본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해외에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교류사 파견 등에 의한 일본문화의 해외 발신'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2] 이후 문화교류사 파견사업은 '문화입국(文化立國)'실현을 위한 시책, '쿨재팬 추진' 전략 등과도 관련되어 일본문화의 해외 발신 및 국제문화교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중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다. 문화교류사는 문화교류사 사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결정되므로 지명 과정에서 사업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청 보도발표자료에 따르면, 문화교류사 사업위원회란 문화교류사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청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로 관계행정기관 및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3] 문화교류사 선정 과정이 대상자의 신청이나 응모가 아닌 위원회의 추천 및 문화청 장관에 의한 지명이라는 점은 외무성과 국제교류기금 등이 시행하는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그 밖의 해외파견 사업과 다른 점이다. 외무성은 '일본브랜드 발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파견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국제교류기금의 '해외파견조성 프로그램'[4]도 모집·응모를 통해 대상자 또는 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작곡가 겸 연주가 가사마쓰 야스히로(笠松泰洋)가 2018년도에 문화교류사로 지정된 직후 「문화청 문화교류사로서의 활동계획(文化庁文化交流使としての活動計画)」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의 모두 부분에서

> 올 초에 갑자기 문화청으로부터 연락이 있었습니다. 내가 문화교류사로 뽑혔으며, 2018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이에 1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어디든 좋으니 해외로 가서 문화 활동을 하고 와주십사하는 의뢰였습니다. (중략)내가 왜 선발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응모하는 것도 아닙니다.[5]

라고 적고 있다. 문화청으로부터 갑자기 문화교류사로 선정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활동의뢰를 받았으나, 응모제도에 의한 선발도 아니므로 자신의 선정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문화교

---

2) '2003년 7월 31일의 '관광입국관계각료회의' 자료(「観光立国行動計画~住んでよし、訪れてよしの国づくり戦略行動計画~」) https://www.kantei.go.jp/jp/singi/kanko2/kettei/030731/keikaku.pdf (검색일:2021.4.1.)
3) 일본 문화청 웹사이트 보도자료 「文化庁文化交流使事業について」 https://www.bunka.go.jp/koho_hodo_oshirase/hodohappyo/pdf/92619901_03.pdf(검색일:2021.4.1.)
4) 2015년도까지 '문화예술교류해외파견조성'으로 실시.
5) 「ところざわ倶楽部・広場」 http://tokorozawaclub.com (검색일:2021.4.5.)

류사의 지명과 지명 분야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정을 위한 해외 수요조사와 문화교류사 사업위원회의 추천을 거친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후보자 선정을 위해 해외 수요조사가 선행된다는 점에서 문화교류사의 지명에 외부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본 내부의 정책 결정이 우선되어 문화교류사 선정의 중점분야가 달라지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후설 하기로 한다.

사업 초기의 문화교류사 활동은 '해외파견형', '현지체류자형', '방일예술가형'의 세 유형으로 나뉘었다. 해외파견형은 일본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이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교류 활동을 하는 경우, 현지체류자형은 해외 거주자 중에서 일본문화에 식견이 있는 문화예술인이 현지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방일예술가는 공연차 일본을 방문한 해외의 저명한 예술가가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에 학교 등을 방문하여 실연과 강연을 통해 교류하는 유형이다. 2008년에는 해외에서 공연하는 예술단체를 지명하는 '단기지명형'이라는 유형이 신설되었고, 그 이후로 한동안 해외파견형과 단기지명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었으나 2014년에 '동아시아문화교류사'[6] 파견이 시작되면서 단기지명형의 파견은 일단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는 해외파견형에서 장기파견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현재는 장기파견형과 동아시아문화교류사의 두 가지 유형으로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파견형으로의 명칭변화는 문화교류사의 장기간 파견이라는 사업형식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교류사의 파견 기간은 원칙상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1개월에 8회 이상의 활동을 의무로 한다. 이제까지 해외파견형·장기파견형으로 지명된 대부분의 문화교류사가 3개월 이상 길게는 12개월에 가까운 기간을 현지에 체류하면서 교류 활동을 해왔다. 이처럼 장기간의 파견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문화교류사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장기파견형 지명자 수와 지명 분야를 정리한 표이다.

---

6) 동아시아문화교류사 사업은 한·중·일 각국의 중견 또는 젊은 예술가가 일정 기간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고, 예술 교류를 통해 상대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 문화청은 2014년부터 일본의 젊은 예술가를 동아시아문화교류사로 지명하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본문화를 알리고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2020-21년도에는 장기파견형의 문화교류사 지명만이 있었고, 동아시아문화교류사의 지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2019년 11월에 문화청이 동아시아문화교류사로 2명을 지명하였고, 각각 한국과 중국으로의 파견이 결정되어 있었으나 이듬해인 3월에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해 파견 중지가 결정된 상황이므로 2020-21년도의 동아시아문화교류사를 새롭게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1> 문화교류사 장기파견형(해외파견형)의 지명 분야

| 년도 | 지명자 수 (전통문화) | 지명 분야 |
|---|---|---|
| 2020 -2021 | 6(4) | 다도·와가시(和菓子), 류큐(琉球)무용, 일본피리, SYOING(書)아티스트, 미디어아티스트, 안무·댄스 |
| 2019 | 6(6) | 샤쿠하치(尺八), 와가시, 가부키(歌舞伎), 교토 요리, 분재, 오리가미(折り紙) |
| 2018 | 4(2) | 작곡, 현대미술, 로쿄쿠(浪曲), 소쿄쿠(箏曲) |
| 2017 | 5(2) | 현대음악, 미디어아티스트, 아트디렉터·아티스트, 노(能), 샤미센(三味線) |
| 2016 | 6(2)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건축, 영상예술, 일본무용, 라쿠고(落語), 안무·댄스 |
| 2015 | 7(4) | 노+현대음악, 댄스·마임, 사진, 노(피리), 극작가, 일본요리(에도시대 가이세키), 쓰가루샤미센(津軽三味線) |
| 2014 | 8(6) | 소설·극작가, 비와(琵琶), 향토요리 및 식생활연구, 다이코(太鼓), CG아티스트, 가타리베(語り部), 노, 칠기·마키에(蒔絵) |
| 2013 | 8(4) | 현대예술, 분재, 서예, 와다이코(和太鼓), 안무·댄스, 전통 미장(左官), 배우, 학예사 |
| 2012 | 9(7) | 이쿠타류소쿄쿠(生田流箏曲), 애니메이션아티스트, 교겐(狂言), 지휘자, 민속무용, 와다이코, 서예, 바둑, 소쿄쿠 |
| 2011 | 7(5) | 아악, 염색, 서예, 노, 전통악기연주그룹, 현대미술, 일본문학(시문학) |
| 2010 | 12(8) | 하이쿠(俳句), 만화가, 일본무용, 화도(華道), 와다이코, 라쿠고, 애니메이션, 바둑, 판화, 배우, 쓰가루샤미센, 노 |
| 2009 | 10(10) | 장기, 바둑, 산신(三線,민속현악기), 신나이부시죠루리(新内節浄瑠璃), 분라쿠, 향도(香道), 죽공예, 와시(和紙) 조형, 기리에(切り絵), 샤쿠하치 |
| 2008 | 8(7) | 작가, 다도, 노, 바둑, 전통 금속조각, 도키와즈샤미센(磐津三味線), 지우타소쿄쿠(地歌箏曲), 목공예 |
| 2007 | 9(6) | 작가, 화도, 화가(2인), 장기, 분재, 바둑, 라쿠고, 요세문자서예(寄席文字書) |
| 2006 | 9(7) | 궁중음악·아악연구 및 연주, 미디어예술, 화도, 일본무용, 극작가 겸 연출, 라쿠고, 분라쿠, 노, 바둑 |
| 2005 | 5(2) | 노, 연극평론가, 강담(講談), 연출, 극작가 겸 연출, |
| 2004 | 5(2) | 나전(螺鈿), 일본화, 사진, 조형예술, 생황(笙簧) |
| 2003 | 12(3) | 음악프로듀서, 영화평론(2인), 와다이코, 각본가, 작곡, 로쿄쿠, 만화가, 피아니스트, 라쿠고, 배우, 작가, |

※출처: 「文化庁文化交流使」公式サイト「文化交流使一覧」을 바탕으로 필자작성

위의 <표1>을 보면 문화교류사의 지명이 일본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전통문화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0건에 달하는 노가쿠(能樂) 분야를 비롯하여 가부키(歌舞伎), 분라쿠(文楽)와 같은 전통극과 샤미센(三味線), 소쿄쿠(箏曲), 와다이코(和太鼓)와 같은 전통음악 분야에서의 지명이 눈에 띄게 많다. 전통문화 중에서도 공연예술을 통한 국제문화교류는 한 번에 다수의 관객 동원이 가능하므로 일본문화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교류

사 사업의 취지인 “일본문화의 심도 깊은 이해로 이어지는 활동을 전개”[7]하기 위해 문화청이 전통문화 중심의 국제문화교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교류사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로 해외 공관의 수요조사가 선행되고 있으므로 문화교류사의 지명이 전통문화 분야로 집중되는 데에는 현지 사정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 3. 문화교류사 지명 분야의 추이

문화청은 매년 새롭게 지명된 문화교류사의 프로필과 함께 예정된 주요활동 내용을 발표하며, 활동 종료 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을 발표하는 활동 보고회를 개최한다. 그렇지만, 문화교류사 지명과 지명 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어서 선정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019년도에 문화교류사로 지명된 가부키 배우 나카무라 교죠(中村京蔵)의 파견은 당시 재외공관으로부터 가부키 실연과 해설 무대를 개최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아 결정되었다고 하므로,[8] 문화교류사 사업개요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문화교류사 지명 분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현지의 수요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문화교류사의 파견 분야별 지명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문화청 문화교류사 사업위원회이다. 문화청의 보도자료「문화교류사 사업위원회 위원」[9] 일람에 따르면 2018년도 문화교류사 사업위원회는 작곡가, 문화재단이사, 미술관 관장, 일본전통음악 저널리스트, 일본방송협회 해설위원, 서도박물관 연구원, 미술관 학예사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도에는 문화재단 이사와 미술관 학예사인 2명의 위원이 교체되었지만,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가 새롭게 위촉되었으므로 전문분야의 이동은 없다. 문화교류사 사업위원회 명단은 2018-19년도 최근

7) 일본 문화청 웹사이트 보도자료「文化庁文化交流使事業について」 https://www.bunka.go.jp/koho_hodo_oshirase/hodohappyo/pdf/92619901_03.pdf (검색일:2021.4.1.)

8) 나카무라 교죠의 문화교류사 지명의 배경에 관해서는 문부과학성이 회답한 ‘쿨재팬 추진에 관한 정책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상황(「クールジャパンの推進に関する政策評価」の結果の政策への反映状況)’ 중에 언급되고 있음.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98376.pdf(검색일:2021.4.25.)

9)「平成30年度文化交流使事業委員会委員(学識経験者)」 https://www.bunka.go.jp/koho_hodo_oshirase/hodohappyo/__icsFiles/afieldfile/2019/05/30/a1415876_01.pdf (검색일:2021.4.5.)
「令和元年度文化庁文化交流使事業委員会委員(学識経験者)」 https://www.bunka.go.jp/koho_hodo_oshirase/hodohappyo/pdf/92676801_01.pdf(검색일:2021.4.5.)

자료만이 공개되고 있어서 초기 위원회 명단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양 영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래에 문화교류사의 지명 분야가 재외공관의 요청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14년도의 '문화예술입국 중기플랜'과 2018년도 '쿨재팬 추진에 관한 정책평가결과'의 권고 후에 문화교류사 지명 분야는 이전의 공연예술에서 식생활 관련으로 중점분야가 변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먼저 2013년 9월 IOC총회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문화청은 같은 해 12월에 올림픽 개최 시까지 일본이 '세계문화예술교류의 허브'가 된다는 목표하에 「문화예술입국 중기플랜(文化芸術中期プラン)」[10]을 세우고 기본구상을 제시하였다. 2013년 12월의「문화예술입국 중기플랜(案)」[11] 발표에 이은 2014년 3월의 「문화예술입국 중기플랜」에서는 중점 시책의 하나로 전통공예·예능, 생활문화(의·식·주)의 해외 발신 강화를 들고 있다.

이러한 정책 공표와 시기를 같이 하여 생활문화 분야에서의 문화교류사 선정, 특히 2014년도의 향토 요리 및 식생활연구 분야에서의 지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2008년에 다도(茶道) 분야에서 다인(茶人) 센 소오쿠(千宗屋)가 지명된 외에는 2003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식생활 분야에서의 지명은 없었으나 2013년의 분재, 2014년 이후의 향토 요리 및 식생활 연구, 에도(江戸) 가이세키(懐石) 요리, 교토(京都) 요리, 와가시(和菓子)와 같은 식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명이 눈에 띄게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입국 플랜 공표에 앞서 플랜 책정을 위한 간담회[12]가 2013년 5월에 문부과학성 대신 주최로 2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 사이에서 생활문화를 활용한 일본문화 발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즉, 간담회에서는 일본전통복장, 전통적인 주거공간, 식문화, 와가시 등 일본의 전통적 생활문화를 활용한 문화 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의 참석자에 의해 거론되었고, 이러한 논의가 문화예술입국 플랜 실현을 위한 방책으로 반영된 결과가 '생활문화의 해외 발신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2014년도에 식문화 분야에서의 지명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10) 일본 문화청 웹사이트「文化芸術立国中期プラン」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_gyosei/hoshin/pdf/plan_2.pdf(검색일:2021.4.5.)

11) 전통적인 일본 생활문화의 해외 발신 강화 전략으로 문화교류사의 확충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서 동아시아문화교류사의 구상 실현이 언급되었고, 2014년부터 동아시아문화교류사의 지명이 시작되었다. (일본 문화청 웹사이트「文化芸術立国中期プラン(案)」)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kondankaito/bunkanomori/01/pdf/shiryo_2.pdf(검색일:2021.4.5.)

12) 일본 문화청 웹사이트「文化芸術立国中期プラン」(「文化芸術の実現のための懇話会」), pp.20-26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_gyosei/hoshin/pdf/plan_2.pdf (검색일:2021.4.5.)

한편, 2013년도 12월에는 와쇼쿠가 '와쇼쿠;일본인의 전통적인 식문화(和食;日本人の伝統的な食文化)'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이 시기 일본문화의 해외 발신 정책에서 와쇼쿠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문화예술입국 중기플랜」에서 제기된 '세계문화예술교류의 허브'가 된다는 목표는 '쿨재팬 전략'과도 깊게 관련된 시책이다. 2018년 일본 총무성에서는 쿨재팬 관련 시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부과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의 세 부처에 권고하면서 대응책 강구를 요청하였다.[13] 이 중 문부과학성에 대해서는 일본의 문화예술 발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사 파견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책을 검토하고, 해당 사업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부과학성은 이상의 권고 사항에 대한 정책 반영상황을 2차에 걸쳐 회답하였으며, 그중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적으면 다음과 같다.

1차 - 일본 고유의 매력 등 일본의 뛰어난 문화예술을 발신하여 일본에 대한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인바운드관광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교류사의 파견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책을 2018년도 5월에 책정하였다.

- 인바운드관광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아시아·미국·유럽·호주 지역에도 중점적으로 파견하기로 하고, 파견 분야는 생활문화를 비롯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분야 및 대중문화 분야를 중점분야로 정함. 이점을 반영하여 2019년도 문화교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2차 - 2018년 5월에 책정된 문화교류사 파견 전략에 따라 2019년도 문화교류사를 파견하였다. 문화체험이 가능한 분야 및 대중문화 분야를 중점분야로 하는 전략을 토대로 생활문화 분야 관계자를 문화교류사로 지명하였다. 이번에 처음으로 문화교류사에 의한 오리가미 강연 등을 실시하였으며, 와가시, 와쇼쿠, 분재와 같은 생활문화 분야 관계자를 문화교류사로 각국에 파견하여 워크샵과 강연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총무성의 권고 사항을 토대로 문화청은 2018년에 문화교류사의 전략적인 파견을 검토하고, 생활문화를 비롯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분야를 중점분야로 정하였으며, 이를 2019년도의 문화교류사 지명에 반영하였다. 2019년도에 문화교류사로 지명된 6명은 전원 전통문화 분야이며, 이 중 4명이 와가시, 와쇼쿠(교토 요리), 분재, 오리가미(折り紙) 전문가로 문화체험이 가능한 생활문화 분야에서의 파견이다. 2020년도에도 다도 및 와가시, 서예 아티스트 분야에서 지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2018년도 이후의 문화교류사 파견 분야

13) 일본 총무성 웹사이트「クールジャパンの推進に関する政策評価の結果の政策への反映状況(2回目のフォローアップ)のポイント」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98376.pdf(검색일:2021.4.5.)

가 생활문화 분야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에 시작된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식생활 문화의 발신 전략과 2018년도의 생활문화의 발신은 같은 맥락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생활밀착형 교류라는 점에서 국제문화교류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활동사례를 통해 본 사업의 성과

## 4.1 장기간 파견의 성과

문화교류사 지명자 수는 2020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늘고 있고, 귀국 후의 보고서 제출과 포럼 개최를 통해 국제문화교류 활동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 또 파견국 증가와 더불어 그 지역이 다양해지고 있는 양상을 띠는 것 역시 문화교류사 사업의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8년의 쿨재팬 추진에 관한 정책평가[14]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문화교류사 활동지역으로 유럽이 전체의 57.2%, 아시아가 전체의 18.4%로 유럽과 아시아가 전체 파견국의 4분의 3을 차지하지만, 대양주, 중남미, 중동 등으로도 파견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문화의 해외 발신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인 파견사업으로는 앞서 언급한 외무성의 '일본브랜드 발신사업'과 국제교류기금의 '해외파견조성' 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 역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해외에 파견함으로써 일본문화의 이해를 촉진한다는 목적은 문화청 문화교류사 사업의 취지와 같지만, 활동 내용상의 차이가 크다. 일본브랜드 발신사업과 해외파견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단기파견이지만, 문화교류사 사업은 장기간 파견이며 동시에 활동 회수가 많고, 파견 후 창의적인 교류 활동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큰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문화교류사 사업의 활동개요를 보면 교류사 지명 기간은 1개월에서 12개월이며, 1개월에 8회 이상 문화교류사로서 활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문화의 심도 깊은 이해와 현지 문화예술인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활동 전개라고 하는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장기간 체류, 그리고 일회성 공연이나 강연으로 그치지 않는 교류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규정이 본 사업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14) 일본 총무성 웹사이트「クールジャパンの推進に関する政策評価の結果の政策への反映状況(2回目のフォローアップ)のポイント」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98376.pdf(검색일:2021.4.5.)

2003년에 문화교류사 사업을 제창했던 가와이 하야오(河合隼雄) 전 문화청 장관은 2004년도에 문화교류사로 선정된 일본화가 스기모토 히로시(杉本洋)와의 대담에서 일본문화의 국제발신을 위해서는 일회성 공연과 전시는 의미가 없고, 장기간 체류를 통해 현지 관람객과의 소통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15) 문화교류사 사업은 일본문화의 일방적인 발신에서 그치지 않고 현지인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류사의 장기간 현지체류와 지속적인 활동을 기본으로 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는 교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문화교류사는 귀국후 보고회, 강연, 포럼 등을 통해 활동보고를 하고 있는데, 현지인과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성과를 거둔 대표 사례로 센 소오쿠를 들 수 있다. 2008년도 문화교류사로 지명된 다인 센 소오쿠는 해외파견에서 돌아온 후의 강연회에서 문화교류사의 의의는 장기간에 걸친 파견이라는 점에 있다고 역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차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즐기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었는데, 일본인의 일상 속에 있었던 차 문화가 어느샌가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에 가까운 특수한 것이 되어 버렸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차가 무대 위에서 연극적인 모습으로 소개되는 일이 반복되어왔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센 소오쿠는 1년간 뉴욕에서 문화교류사로서 생활하면서 일본의 차 문화를 퍼포먼스로 인식하는 오해를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었다고 말한다.16)

센 소오쿠의 활동을 살펴보면 뉴욕에서 거주하는 1년 동안 현지인을 초대하여 식사 후에 차를 마시고, 일상 속에서 차를 즐기는 생활을 실천하면서 현지인과의 교류를 자유롭게 기획하였는데, 이는 장기간 파견이라는 제도 덕분에 가능한 활동이었다. 문화의 본질과 즐거움은 생활 속에서 경험의 반복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며, 이를 문화교류사 활동을 통해 느꼈다고 말하고 있는 센 소오쿠의 활동사례에서 문화교류사 사업의 의의와 성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센 소오쿠의 활동 내용에서도 보듯이 문화교류사가 현지에서 교류활동을 기획하고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본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생활인으로 현지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 4.2 전통의 동시대성 모색의 기회

문화교류사의 파견 분야 중 전통예술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앞에서

15) 杉本洋・河合隼雄文化庁長官対談(2005)「日本文化を立体的に伝えたい」『文化庁月報』445, pp.8-9
16) 千宗屋(2010)「日本文化の世界における受容-文化庁文化交流しの視点をふまえて-」『文化情報学』5, pp.15-21

살펴본 대로이다. 이와 동시에 전통예술문화 중에서도 장르와 지역의 경계 없이 활약하면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술인이 문화교류사로 선정되는 예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문화교류사로 선정된 전통예술인의 활동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아악 연주가 마나베 나오유키(真鍋尚之)는 2011년도 문화교류사로 선정되어 5월부터 1년간 베를린을 거점으로 하여 12개국, 30개 도시에서 50회의 연주회와 워크샵, 현지 작곡가와의 공동작업 등을 진행했다. 특히 생황을 연주하며 동시에 현대음악을 작곡하는 마나베는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예술가이며, 10여 년 전부터 다른 작곡가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생황을 독주로 연주 가능한 악기로 변화시켰다. 마나베는 문화교류사 활동 보고서에 "현지 작곡가와의 공동작업에는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처음 베를린에 도착하면서부터 준비를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아악은 협주 무대가 일반적이므로 단신으로 파견되어 현지 작곡가와 공동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작곡법을 비롯하여 아악에 대한 강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컸다"[17]고 회상하였다. 마나베의 문화교류사로서의 임기는 1년 후인 2012년 5월에 끝났지만, 이후로도 일본과 유럽에서 양국의 작곡가와 공동작업을 하면서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문화를 해외에 발신하는 일은 대중문화와 비교해 쉽지 않은 일이다. 마나베가 생소한 일본의 전통악기를 현지의 작곡가에게 이해시키고 공동작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영역을 초월한 무대 활동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일 것이다. 생황을 독주 악기로 가능하게 만들었던, 즉 전통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모색이라는 측면이 높은 평가를 얻고, 문화교류사로서의 지명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2014년도 문화교류사 다이코(太鼓) 연주가 하야시 에이데쓰(林英哲)의 활동사례도 전통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하야시는 11년간 그룹 활동을 하면서 세계 투어를 이끌었고, 1982년부터 솔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일본의 전통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다이코 독주법을 창조하고, 국경과 장르를 넘어 전 세계로 일본의 새로운 음악을 발신해왔다.

또 다른 예로 전통예술과 동시대 문화를 융합하기도 하고, 전통예술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면서 노(能)라고 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예술을 현대 무대에 올리고 있는 문화교류사가 있다. 2015년도 문화교류사 아오키 료코(青木涼子)이다. 아오키는 노 배우로 출발했지만, 영국에서 수학한 이후에 유럽의 각종 무대에 노의 연기법을 적용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직함으로 '노×현대음악 아티스트'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예를 보더라도 전통과

17) 일본 문화청 웹사이트「文化交流使活動報告102」(『文化庁月報』535)
https://www.bunka.go.jp/pr/publish/bunkachou_geppou/2013_04/index.html(검색일:2021.4.5.)

현대예술을 융합시켜 활동하는 예술인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오키는 문화교류사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일본 국내와 아시아 및 유럽 국가를 왕복하면서 세계의 저명한 작곡가와 함께 활동하였다. 특히, 2010년부터 해외 작곡가에게 위촉한 시리즈물을 주최하였으며, 2013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데뷔, 2014년에 데뷔앨범 『노×현대음악(能×現代音楽)』(ALCD-98)을 발매하는 등, 이제까지 어떤 노 배우도 도전하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다. 이러한 영역과 장르를 벗어난 예술 행위, 국제적인 활동이 문화교류사의 지명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015년에 아오키 료코와 함께 문화교류사로 지명된 요시다 겐이치(吉田健一)도 세계 각국에서 공연해 왔고, 국내외 다양한 예술인과 공동작업을 통한 왕성한 교류 활동을 했다. 무대음악, 광고 음악계에서 활약하는 등 일본의 전통예술 장르를 넘어 세계적인 예술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일본무용의 후지마 란코(藤間蘭黄)는 에도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전 무용가 가문의 후계자이지만,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유파를 넘는 활동을 해왔다. 고전 작품을 계승하는 한편으로 해외의 문예 작품과 음악을 제재로 한 신작을 연출하고 발표했으며, 발레 장르와의 공동작업을 시도하기도 하면서 후지마 역시 영역 없는 왕성한 예술 활동을 이어왔다. 이 밖에도 샤미센 연주 분야에서 선정된 혼죠 히데지로(本條秀慈郎) 역시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 후지쿠라 다이(藤倉大)와 함께 활동하고,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무용가, 디자이너와의 공동작업 등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예술인이다.

위에서 들은 문화교류사가 공연예술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생활문화와 밀접한 다도 문화 분야에서도 전통예술을 현대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 접목시키고 있는 예술인으로 센 소오쿠와 오타 소타쓰(太田宗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2020년 문화교류사 오타 소타쓰는 와가시 전문가이며 동시에 다인이다. 오타는 교토를 중심으로 전통문화 계승에 힘을 쏟는 한편, 국내외에서 화제가 될 만한 수많은 다회(茶會)를 기획해 왔다. 차와 와가시를 가지고 세계의 대학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해외의 문화인들에게 전통적인 일본의 차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왔다. 세계 각국으로 연결된 오타의 인맥은 해외 문화예술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라고 하는 문화교류사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예술이 동시대적인 감각을 잃어버림으로써 현대의 관객들 사이에서 멀어져 간 것은 우리와 일본 양국의 공통된 상황이며,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시류 속에서 문화교류사로 지명된 전통예술 분야의 예술인은 저마다 전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고, 전통예술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동시대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문화청 문화교류사 사업이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통예술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융합시키고 동시대적인 힘을 얻게 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예술 종사자가 전통문화의 틀을 깨고 활약하는 데에 있어서 안고 있었을 부담, 즉 전통적인 형식을 중요시하는 입장과의 견해 차이, 활동상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마다 아악을 비롯한 전통악기 연주가가 거의 빠지지 않고 문화교류사로 지명되고 있는 점도 전통예술인의 후원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주목할 부분이다. 전통악기의 독주법 개발, 현대 예술과의 공동작업 등을 통해서 전통예술문화는 보존과 계승을 위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고, 문화교류사 사업은 그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전통의 현대적 수용과 계승이라는 시점에서 문화청 문화교류사 사업의 특징 및 성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문화교류사의 선정배경과 파견현황, 활동사례 등의 조사를 통해 문화교류사 사업이 일본의 전통예술에 현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전통에 대해 동시대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시점을 제시하였다.

2003년도에 일본브랜드의 해외 발신을 위한 전략으로 시행되었던 문화교류사 사업은 그 이후 문화입국 실현을 위한 시책, 쿨재팬 추진 전략 등과도 관련되어 일본문화의 해외 발신 및 국제문화교류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중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문화교류·국제공헌을 위한 주요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교류사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문화청이 개최하는 문화교류사 포럼과 활동보고서, 강연기록, 저술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활동상의 특징으로는 문화교류사의 현지 장기간 체류, 복수의 국가 및 도시 방문, 지속적인 교류 활동, 해외 현지 예술인들과의 공동작업, 생활인으로서 창의적인 교류행사 추진 등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극작가 겸 연출가 히라타 오리자(平田オリザ)가 최근 인터뷰에서 "일본의 해외정책이 매우 단락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문화는 훌륭하므로 발신하면 인기를 끌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18]라고 했던 지적이 눈길을 끈다. 일회성 공연과 단발적인 교류행사로 그쳐서는 문화교류의 의의를 찾는 데에 한계가 있다. 문화청 문화교류사 사업은

18) 平田オリザ(2020.7.1.)「世界一の文化大国」韓国に日本が追いつけない理由を平田オリザ氏が語る」 https://www.nippon.com/ja/news/fnn2020070158121/?cx_recs_click=true(검색일:2021.4.10.)

이 같은 단락적인 문화교류의 한계점을 일정 부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문화교류사 사업이 장기간 체류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생활인으로서 현지 시민과의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은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 사례로 들은 문화교류사를 비롯하여 전통문화 분야의 교류사는 기본적으로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전통과 현대, 일본과 세계의 경계를 넘어 활약하는 문화예술인들이다. 이미 국제적으로 활동하며 해외 예술가와의 인맥 형성이 왕성한 이들을 문화교류사로 지명함으로써 문화교류사 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해외 문화예술가와의 네트워크 강화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문화교류사 지명은 결과적으로 전통의 현대적 수용과 확장을 위한 예술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전통의 문화적 가치를 동시대적으로 풀어내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河村建夫·伊藤信太郎編著(2018)『文化芸術基本法の成立と文化政策-真の文化芸術立国に向けて』水曜社
杉本洋 · 河合隼雄文化庁長官対談(2005)「日本文化を立体的に伝えたい」『文化庁月報』445
千宗屋(2010)「日本文化の世界における受容-文化庁文化交流しの視点をふまえて-」『文化情報学』5
山本華子(2009)「伝統音楽を通した国際文化交流」『洗足総論』38
「ところざわ倶楽部・広場」 http://tokorozawaclub.com (검색일:2021.4.5.)
平田オリザ(2020)「世界一の文化大国」韓国に日本が追いつけない理由を平田オリザ氏が語る」
https://www.nippon.com/ja/news/fnn2020070158121/?cx_recs_click=true(검색일:2021.4.10.)
마나베 나오유키(真鍋尚之) 웹사이트 http://sho-manabe.net/(검색일:2021.4.30.)
문화청 문화교류사 웹사이트 https://culturalenvoy.jp/(검색일:2021.4.1.)
문화청 웹사이트 https://www.bunka.go.jp/(검색일:2021.4.5.)
아오키 료코(青木涼子) 웹사이트 https://ryokoaoki.net/(검색일:2021.4.30.)
전통문화 프로듀스 렌(連) 웹사이트 http://www.ren-produce.com/(검색일:2021.4.30.)
총무성 웹사이트 https://www.soumu.go.jp/(검색일:2021.4.5.)

논문투고일 : 2021년 06월 20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7월 14일
1차 수정일 : 2021년 08월 10일
2차 수정일 : 2021년 08월 20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8월 20일

## <要旨>

### 전통의 현대적 수용과 계승을 위한 모색

－문화청 문화교류사 사업을 중심으로－

**김현욱**

이 논문은 문화청 문화교류사 사업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문화교류·국제공헌을 위한 주요 시책이라는 인식하에 문화교류사의 지명과 지명 분야의 선정배경을 조사하고, 동시에 문화교류사 사업의 특징과 성과를 살펴본 연구이다. 문화교류사의 지명은 전통문화 분야에서의 선정 비율이 높고, 그중에서도 장르와 영역을 넘어 활동하는 국제성을 갖춘 문화예술인을 지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문화청 문화교류사 사업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통예술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융합시키고 동시대적인 힘을 얻게 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교류사 사업이 결과적으로 전통문화에 종사하는 예술인을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문화교류사의 활동사례를 들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사례로 들은 전통예술문화 분야의 문화교류사는 전통과 현대, 일본과 해외의 경계를 넘어 활약하는 예술인이 대부분이다. 이미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외 예술가와의 인맥 형성이 왕성한 이들을 문화교류사로 지명함으로써 문화교류사 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해외 문화예술가와의 네트워크 강화라고 하는 점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the Japanese Culture Envoys

***Kim, Hyeon-Wook***

This paper is about the Japanese Cultural Envoy. This undertaking aims to deep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understanding of Japanese culture and build and strengthen networks between Japanese and foreign artists and experts. Throughout the thesis,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Japanese Cultural Envoy is investigated, and at the same time,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the Japanese Cultural Envoy are considered. In particular, the Japanese Cultural Envoy has a high rate of selection in the traditional culture field. Although the profession is a specialist in traditional arts, there are many examples where people who perform in collaboration with contemporary artists or active internationally are selected as the Japanese Culture Envoys. As a result, opportunities for modern people to have cultural values and interest in traditional arts are increasing. In sum, this thesis explains various examples of the Japanese Cultural Envoys.